

#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A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Violent Behavior and Child's Aggress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노치영  
교수 박성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

*Doctoral Dourse Noh, Chi Young*

*Professor Park, Seong Yeon*

## 〈목 차〉

I. 서론	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I.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문제 및 용어의 정의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 violence.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effect of the parental violent behavior on the child's aggression.

For this purpose, 266 6th grade children in Seoul are classified into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aggression rated by their teac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re are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he child's aggression, experience of parent-to-child violence and parental marital violence.
2. Experiencing parent-to-child violence and parental marital violence greatly affected the level of the child's aggression. The effects are greater for the children who observed parental marital violence than who experienced child violence.
3. Father-to-mother violence rather than mother-to-father violence affected the level of the child's aggression, especially for the boys.

## I. 서론

가족은 사랑과 온유함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이 이상화되는 것은 이념적 신화일뿐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가족에 대한 신화때문에 연구를 기피해온 가족 현상중 하나가 가족 폭력이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 역사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들에 의해 폭력이 야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Pagelow, 1984). 가족 구조는 연령과 성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위계 구조이며, 가족원간의 귀속 지위에 따른 역할갈등과 스트레스가 존재하며, 그리고 사적인 영역(family privacy)으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외부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 폭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 폭력은 개별 가족 내적인 문제로서 사회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로 여기지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학적 사례들이 보고한 수치들은 가족 폭력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Hilberman(1980)은 미국 가정의 50% 이상에서 크든 작든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 중 20~5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족 폭력중 가장 흔한 형태가 부모의 아동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Straus 등(1980)에 의하면 84~97% 정도의 부모들이 그들 자녀를 가끔씩 체벌하며 3~4세의 82%는 거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10~14세의 66%는 부모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반면 McClintock(1963)은 가족 폭력중 90% 이상이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teinmetz, 1987에서 재인용).

침착로 가족 폭력 보고 사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성적 폭력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Gelles & Conte, 1991). 물론 부모의 아동 폭력과 배우자 폭력을 상대방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가족 폭력이 가져오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는 개

인의 사회적 병리 현상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정내에서 한 개인의 폭력 성향이 생기는 발달 부분에 관심이 가게 된다. Curtis(1963)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며 부모의 폭력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인 부부 관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Huesmann et al.(1984)의 종단 연구에서도 개인의 공격성이 상황과 시간에 따라 지속될 뿐 아니라, 가족내 세대간에 일관된 관계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폭력 경험과 관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학습 이론을 지지해 주는 바이다. 그러나 사회 학습 이론에는 폭력 경험과 관찰간의 영향을 구분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사회 조사연구가 저조한 실정으로 가족 폭력이 세대간에 전이된다는 관점은 임상 연구에서만 밝혀지고 있다. 임상 연구 결과들은 절적인 면에서 매우 신뢰할만한 결과들이지만 심한 폭력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병리적인 사례들의 결과로 오해하기 쉬우며 일반화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Reidy, 1977; George & Main, 1979; Kinard, 1980; 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폭력을 가족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모의 폭력 행동-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 폭력과 관찰한 부부 폭력에 국한시켜서 가족 폭력이 폭력과 같은 차원에 있는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사회 조사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폭력이나 공격성 학습이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 폭력과 아동이 관찰한 부모의 배우자 폭력중 어느 요인이 아동의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아동의 공격성이 역할 모델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써 폭력적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발달되는 지를 예측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 이론

대다수의 사회 과학자들은 폭력과 공격성이 분능 이라기 보다는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학습 이론이 생물학적 요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격성 획득과 수행이 개인의 이전 학습, 적절한 상황적 자극, 인지적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Campbell & Humphrey, 1984). 또한 이 이론에서는 공격성이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모델에 접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아동이 그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므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배운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Straus와 Owens(1975)는 아동이 가족, 하위 문화, 매체 등을 통해서 폭력을 많이 보거나 피해자가 될수록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폭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폭력적인 환경은 부모로서 아동이 부모의 폭력을 이용한 권력, 지위, 자원 획득 과정을 보는 경우 아동도 그것을 얻고자 할 때 부모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 점은 종종 폭력적인 남성들이 아동기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바이다(Campbell & Humphrey, 1984).

Bandura는 초기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아동이 공격적인 모델링을 관찰 학습하므로써 공격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정서적으로 충동적이 되거나 혹은 강화 효과를 일으켜 공격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Eron(1972)은 국민학교 3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폭력물 양과 10년 후 그들의 공격성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므로써 모델링의 장기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부모의 체벌 사용은 또다른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에 강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역할 모델이 자신과 동일시가 이루어졌을때 그 모델의 공격성을 더 잘 모방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모델로부터 학습되어진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아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강화되어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모델링 효과는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사회 학습 이론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억제 요인에 의해 폭력을 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하고 있다(Campbell & Humphrey, 198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 학습 이론은 개인의 폭력과 공격성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특히 역할 모델이 되는 부모로부터 학습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 1)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사회 계층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차이는 하류층 아동이 중상류층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 있는 한편(McKee, 1955; Berkowitz, 1958; Hirsh, 1981에서 재인용; 김해연, 1986), 상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Eron et al., 1961)도 있어서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자원 교환 이론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을 덜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Goode, 1971; 김정옥, 1985). 그런데 임상가나 가족 상담자들은 신체적인 폭력이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단지 계층차가 나는 이유는 중상류층이 사적인 사회 지지 체계들과 접촉을 갖아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하류층은 공공 사회 통제 대행체들에 의존하여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Hilberman, 198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류층 부인들의 48% 이상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서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병원이나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류층보다 중상류층이기 때문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김 광일, 1985).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이나 가족 폭력에 대한 사회 계층차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회 계층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직업으로 분류한다면, 가족 폭력과의 관계는 명백하게 보여진다. 즉 전문직이나 사무직 계층보다 노동자 계층에서 가족 폭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Steinmetz, 1977; Steinmetz, 1980에서 재인용).

## 2)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아동 폭력 경험이나 부모의 부부 폭력 관찰에 의해 성장기 아동은 신체적 발육 지체, 행동이 산만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관찰한 부모의 부부간 불화와 폭력 행동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정순, 1986; 김광일, 고복자, 1987; Forstrom cohen & Rosenbaum, 1985).

아동들은 부모의 폭력 행동을 관찰하거나 체면을 경험하거나 부모가 형제의 싸움에 대해 불만에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폭력에 가치를 두도록 배우므로써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폭력 사회화 학습은 부력을 문제 해결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만든다(Campbell & Humphrey, 1984). 또한 아동의 공격성은 성인이 되어 생식 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이룬 후에도 계속되어 가족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Emery, 1989).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 연구로서 Straus 등(197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traus 등은 사회 학습 모델로 미국 가정에서의 폭력의 정도와 역동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3~17세의 아동들 들 1,146 가족을 CTS(Conflict Tactics Scales) 척도로 전국 조사한 결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이 이전 세대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왔다. 즉 조부모 세대가 폭력적 일수록, 부모가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폭력적 일수록, 형제간에 서로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Straus 등은 결론적으로 조부모와 부모중 1명 이상이 폭력 가정에서 자란 경우 그 가정은 다음 세대의 아동을 해칠 위험이 충분할 만큼 폭력적이라고 하였다(Campbell & Humphrey,

1984에서 재인용). Kalmuss(1984)의 연구에서는 10대에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관찰했던 것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던 것보다 부부간 폭력 사용에 더 영향을 미쳤지만, 폭력 관찰과 경험을 모두 겪은 것이 부부간 폭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을 관찰했던 것이 특정 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부부간 폭력 수행자가 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폭력적인 환경은 아동기때부터 개인의 공격성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즉 집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가족 폭력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아지며, 더우기 아동기때 경험, 관찰한 가족 폭력이 성인기의 가족 폭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III. 연구 문제 및 용어의 정의

### 1. 연구문제 및 가설

I.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및 부모의 폭력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 I-1.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I-2.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은 높을 것이다.

가설 I-3.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부부 폭력을 관찰한 정도는 높을 것이다.

II. 부모의 폭력 행동 경험이나 관찰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 II-1.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이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II-2. 아동이 부모의 부부 폭력을 관찰한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II-3.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보다 부모의 부부 폭력을 관찰한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III. 부모의 부부 폭력 관찰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 III-1.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보다 아

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관찰한 정도가 심할수록 남아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III-2.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보다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관찰한 정도가 심할수록 여아의 공격성은 높을 것이다.

##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1) 가족폭력: 폭력이란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폭력을 쌍방간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의 폭력행동: 부모의 아동 폭력과 배우자 폭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상해 정도에 따라서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아동 폭력 경험: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폭력 관찰: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부모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본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격적 대화: 부부간에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한 것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공격성: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상해를 포함한 개인적인 상해와 소유물 파괴를 낳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다른 사람 혹은 사람의 소지품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유해한 자극을 가하려는 의학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또래보다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1988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후 본 아동용 질문지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격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10개교에서 1988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교사의 학생평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임을 감안하고 교사의 응답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로 하여금 한 학급당 5명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는 먼저 교사가 학급에서 싸움 잘하고 말썽 잘 피우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5명씩을 선정하여 각 아동에 대해서 공격성을 평가하며 각 아동은 부모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교사의 평가를 통하여 표집된 아동은 총 518명이었으나, 이들 중 공격적, 비공격적이라고 판단하기가 모호한 아동들을 제외시켜 266명을 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남아가 72.9% 여아가 27.1%로 남아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표집되었는데, 이것은 표집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를 기초로 극단적인 공격, 비공격 집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격 집단 아동은 51.9%이고 비공격 집단 아동은 48.1%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기초로 한 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상류층이 13.3% 중류층이 59.7% 하류층이 27.0%이었다.

### 2. 측정 도구

#### 1) 가족 폭력 측정 도구

가족 폭력 측정 도구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 사회 계층은 홍두승(1982)의 직업군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구	분	N (%)
아동의 성별		남아		194( 72.9)
		여아		72( 27.1)
		계		266(100.0)
아동의 공직성		공직집단		138( 51.9)
		비공직집단		128( 48.1)
		계		266(100.0)
부의 직업	상	대기업주·작분가·정부의 최요위 관리직		7( 2.7)
		전문직·관리직		28(10.6)
		계		35( 13.3)
	중	사무직·기술직		78( 29.7)
		자영업공업·자영업농업·자영업기술자		79( 30.0)
		계		157( 59.7)
	하	퇴고용 기술인		41( 15.6)
		단순 노동자·정소원·수위·행상		25( 9.5)
		무직		5( 1.9)
		계		71( 27.0)
		무응답		3( 1.1)
		계		266(100.0)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중 폭력 행동 문항들로서, 예비 조사후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 폭력 정도의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TS의 폭력 행동 문항들은 폭력 수준이 점차로 높아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차고 붙어 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동 이상을 심한 상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폭력행동이라고 하였다. CTS의 분석방법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 '결코 그런 적이 없다'에서부터 '스무번 이상'의 범위에 걸쳐 Likert 형식으로 점수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폭력을 아동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응답 범주 기준을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년, 1달, 1주일, 거의 매일로 바꾸었으며, 본조사후 폭력행동에 대한 응답 반응들이 편포(skewedness)되었기 때문에 폭력과 비폭력의 이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한 두번 이상 약한 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만을 '약한 폭력 경험'이라고 보았으며, 약한 폭력이 발생한 것과 상관 없이 지난 1년 동안 한 두번 이상 심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를 '심한 폭력 경험'이라고 판단하였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 관찰 정도에 대한 분석 방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동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혹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공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 관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공격적 대화 관찰'로, 공식적 대화와는 상관 없이 약한 폭력만 관찰한 경우는 '약한 폭력 관찰'로 그리고 공격적 대화나 약한 폭력과는 상관없이 심한 폭력을 관찰한 경우는 '심한 폭력 관찰'로 분류하였다.

### 3. 아동의 공격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을 관별하기 위하여 제3자의 평가를 기초로 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

는 사람은 또래와 교사인데, 본 연구 실시 시기가 학년 초임을 감안하여 또래보다 교사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사의 평가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교사 평가 척도는 Ross, Lacey와 Parton(1965)의 PASS(Pittsburgh Adjustment Survey Scales)중 공격성에 대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예비조사후 9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간 상관 관계와 주성분 분석을 통

## 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 폭력을 부모의 폭력 행동으로 국한시켰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 행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 정도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였고, 약한 폭력 경험은 38.7%, 심한 폭력 경험은 42.5%로 나타났

〈표 2〉 사회 계층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chi^2$  검증

단위 : %

사회 계층		사회 계층				$\chi^2$
		상	중	하	계	
아동의 공격성	공격집단	35.3(12)	47.8(75)	70.8(51)	52.5(138)	15.1*** df=2
	비공격 집단	64.7(22)	52.2(82)	29.2(21)	47.5(125)	
계		100.0(34)	100.0(157)	100.0(72)	100.0(263)	

\*\*\* p&lt;.001

〈표 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폭력 행도의  $\chi^2$  검증

단위 : %

사회 계층		사회 계층				$\chi^2$
		상	중	하	계	
부모의 폭력 행동 경험 및 관찰	전혀 경험한 적이 없음	50.0(17)	17.8(28)	6.9(5)	19.0(50)	29.3*** df=4
	약한 폭력 경험	29.4(10)	46.5(73)	29.2(21)	39.5(104)	
	심한 폭력 경험	29.6(7)	35.7(56)	63.9(46)	41.4(109)	
	계	100.0(34)	100.0(157)	100.0(72)	100.0(263)	
부부 폭력 관찰	전혀 관찰한 적이 없음	75.0(24)	49.7(77)	38.9(28)	49.8(129)	28.1*** df=6
	공격적 대화 관찰	15.6(5)	41.3(64)	31.9(23)	35.5(92)	
	약한 폭력 관찰	9.4(3)	4.5(7)	12.5(9)	7.3(19)	
	심한 폭력 관찰		4.5(7)	16.7(12)	7.3(19)	
	계	100.0(32)	100.0(155)	100.0(72)	100.0(259)	

\*\*\*p&lt;.001

## 2.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연구 문제 2〉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 폭력과 부부 폭력 관찰이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에 아동 폭력 경험과 부부 폭력 관찰 중 어느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수 선형 절차를 이용한  $\chi^2$ 를 산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을 관찰한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공격적 대화 관찰 빈도를 부부 폭력 관찰 빈도에 합쳐서 부부 폭력을 관찰하지 않은 빈도와 비교하였다. 공격적 대화는 폭력과 서로 다른 차원으로 정의되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불화나 폭력 모두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점에 근거를 두고 표본의 편포를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아동 폭력을 경험한 것과 부부간에 행해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한 것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의 부부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한 것 ( $\chi^2=13.05$  df=1 p<.001)이 부모로부터 아동 폭력을 경험한 것 ( $\chi^2=6.91$  df=2 p<.05)보다 아동의 공격성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 폭력 경험과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그런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효과는 부모로부터 아동 폭력을 경험한 아동수(N: 216·81.2%)가 부모의 부부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표 4〉 아동폭력 경험과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빈도

단위 : 명

공격성	경험 관찰	전혀 경험 없음		약한 폭력 경험		심한 폭력 경험	
		관찰한 적 없음	관찰한 적 있음	관찰한 적 없음	관찰한 적 있음	관찰한 적 있음	관찰한 적 있음
		공격집단	6	6	27	30	19
비공격집단	33	5	27	19	23	21	

〈표 5〉 아동폭력 경험과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chi^2$  검증

	df	$\chi^2$	p
아동 폭력 경험(A)	2	6.91*	.0316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B)	1	13.05***	.0003
A × B	2	3.11	.2112

\*\*\*p<.001 \*p<.05

관찰한 아동수(N:131·49.2%)보다 약 2배정도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과 더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은 가정내에서의 아동 폭력 경험과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경험보다 관찰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부부 폭력 관찰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연구 문제 3〉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부부 폭력 관찰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검증해 보고자 대수 선형 절차를 이용한  $\chi^2$ 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처럼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과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은 공격적 대화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남아의 공격성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한 것과 더 유의한 관계( $\chi^2=3.97$  df=1 p<.05)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의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 효과

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6 표 7).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대화 관찰면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32.4% 어머니의 행동은 37.5%로 비슷한 반면, 폭력 관찰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비율이 12.8%였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비율은 5.7%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행동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 행동보다 높았기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ndura가 그의 이론에서 여아들이 공격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표집상 편포를 고려해 볼 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폭력이 세대간에 전이되는 지를 부모의 폭력 행동과 공격성 관계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표 6〉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빈도

단위 : 명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모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아동의 공격성		관찰한 적 없음		관찰한 적 있음	
		관찰한 적 없음	관찰한 적 있음	관찰한 적 없음	관찰한 적 있음
남아	공격집단	48	5	12	62
	비공격 집단	41	3	2	21
여아	공격 집단	4	0	1	6
	비공격 집단	42	5	2	12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과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의  $\chi^2$  검증

		df	$\chi^2$	p
남아	부의 모에 대한 공격적대화나 폭력 관찰(A)	1	3.97*	.0463
	모의 부에 대한 공격적대화나 폭력 관찰(B)	1	.10	.7478
	A×B	1	.92	.3373
여아	부의 모에 대한 공격적대화나 폭력 관찰(A)	1	2.53	.0999
	모의 부에 대한 공격적대화나 폭력 관찰(B)	1		.9811
	A×B	1		.9811

\* p&lt;.05

다.

1. 사회 계층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 폭력 및 부모의 부부 폭력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폭력과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 관찰이 아동의 공격성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특히 부부의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한 것이 아동의 공격성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아동의 공격성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공격적 대화나 폭력 행동을 관찰한 것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행동 관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 계층에 따라 부모의 폭력 행동을 경험, 관찰한 수준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층별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류층은 가족에 대해 폭력적 해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류층은 아동에 대해서는 약한 폭력을, 배우자

에 대해서는 언어적 공격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중류층이 아동에 대해 약한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폭력으로 보기 보다는 훈육적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계층과 부모의 폭력 행동 수준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위 문화권의 폭력 허용 수준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사회계층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은 사회적으로 공격성을 묵인해주는 문화권에서 성장함에 따라 공격적인 또래 문화나 공격적인 방송 매체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이 가족내에서 학습한 공격성 수준에 부감각해져서 공격성 학습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공격성은 성장하는 동안 방위 가족(family of origin)의 폭력 수준이외에도 하위 문화, 사회의 폭력 수준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남아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보아지며 여아의 경우는 공격성을 억압하는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남아보다 공격성을 학습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아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개인 발달에 있어서 폭력적인 경험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인 폭력관찰의 영향이 개인의 공격성을 사회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학습 이론을 지지해 주면서 동시에 실증적으로 폭력 경험과 관찰의 영향력을 입증해 주었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는 개인의 공격성이 부모로부터 사회화되어지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가족폭력이 세대간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즉 가족의 폭력적 환경이 단순히 1세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개인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가족 폭력은 가족의 사생활로 묵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중재해 줄 가족 상담이나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등의 개발이 절실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 편포(skewedness)로 인해 아동의 성이 공격성과 폭력경험 및 관찰에 중요 변수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부폭력 관찰에 공격적 대화 관찰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폭력의 관찰 학습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지만, 폭력뿐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도 폭력을 학습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도 보아진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폭력의 관찰 학습의 효과를 구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본 연구가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을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서로 대비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폭력 행동을 같은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이 아직까지는 개념적 타당성을 얻지 못한채 여러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되어지

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작업과 함께 연구자들간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 정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은 언어적, 정서적 학대가 수반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중복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폭력 측정도구는 외국의 척도로서 임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폭력 수단이나 도구는 문화권에 따라서,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가 가족중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적 특수성이 가미된 개별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세대간에 전이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 광일(1985),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 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pp. 140-177.
- 2) 김광일, 고복자(1987), "한국에서의 아동 구타 현황: 병원상황에서", 정신건강연구, 6, pp.235-256.
- 3)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 해결 표출에 관한 연구-폭력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pp.91-110.
- 4) 김정준(1986),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에서 조사한 어린이 학대 현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김혜연(1986), "성과 사회 계층에 따른 유아의 공격 행동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홍두승(1982), "한국 사회 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범문사
- 7) Bandura, A.(1973), *Aggression: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Prentice-Hall.

- 8) Campbell, J.& J.Humphrey(1984), *Nursing Care of Victims of Family Violence*, Virginia:Reston Publishing Company.
- 9) Curtis, G.C.(1963), "Violence Breeds Violence-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pp.386-387.
- 10) Emery, R.(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pp.321-328.
- 11) Eron, L.D., T.J.Banta, L.O.Walder, & J.H. Laulicht(1961), "Comparison of Data Obtained from Mothers and Fathers on Child Rearing Practices and Their Relation to Chil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32, pp.457-472.
- 12) Eron, L.D., L.O.Walder, & M.M.Lefkowitz (1971), *Learning of Aggression in Children*, Boston:Little Brown.
- 13) Forsstrom-cohen, B.&A.Rosenbaum(1985),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Violence on Young Adults: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pp.467-472.
- 14) Gelles, R.J.& J.R.Conte(1991),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ed. A.Booth, *Contemporary Families*, Minnesota: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p.327-340.
- 15) George, C. & M.Main(1979),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Abused Children: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pp. 306-318.
- 16) Goode, W.(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pp.637-648.
- 17) Hilberman, E.(1980), "The Wife-Beater's W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pp.1336-1347.
- 18) Hirsh, M.F.(1981), *Women and Violence*,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19) Hoffman-Plotkin, D. & C.T.Twentyman(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pp.794-802.
- 20) Huesmann, L.R., L.D., Eron, M.M, Lefkowitz, & L.O.Walder(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0, pp.1120-1134.
- 21)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pp.82-91.
- 22) Kinard, E.M.(1982), "Experiencing Child Abuse: Effects on Emotional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pp.82-91.
- 23) Pagelow, M.D.(1984), *Family Violence*, New York:Prageger.
- 24) Kinard, T.J.(1977), "The Aggressive Characteristics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pp.1140-1145.
- 25) Rosenbaum, A. & K.D.O'Leary(1981), "Children:The Unintended Victim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pp. 692-699.
- 26) Ross, A.O., H.M.Lacey, & D.A.Parron(1965), "The Development of Behavior Checklist for Boys", *Child Development*, 36, pp.1013-1027.
- 27) Steinmetz, S.K.(1987), "Family Violence:Past, Present, and Future", eds.M.B.Sussman & S.K.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Plenum Press, pp.725-765.
- 28) Steinmetz, S.K.(1980), "Violence Prone Families", *Annals of the New Academy of Sciences*, 347, pp. 251-265.
- 29) Straus, M.A., R.Gelles, & S.Steinmetz(1980), *Behind Closed Doors: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Doubleday.
- 30)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pp.75-78.
- 31) Straus, M.A. & D.J.Owens(1975),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1, pp.195-196.